

慶北 새마을 技術奉仕團

奧地가 새마을로 急成長

生動하는 茸耳 1洞의 近況

慶北道團 技術結緣코 集中支援

山間奧地의 貧村이었던 慶北達成郡 論工面 茸耳一洞, 찾아오는 이도 적고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보는 것도 적고 듣는 일도 드문 이 마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落後되어 갔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이 마을에서도 “잘 살아보자”는 꿈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씩 이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慶北 새마을 技術奉仕團과 74年 7月10日 技術結緣을 맺어 오늘에 이른 茸耳一洞의 近況을 살펴본다.

// 조용하지만 한 茸耳一洞 //
// 물려받은 貧困脫皮 못해 //

大邱市에서 東南方向으로 約 70여키로 떨어진 左側으로 논두렁길이 뻗혀있다. 이 꼬불한 논두렁을 건너 밭둑을 끼고 산길을 지구자구로 약 4키로쯤 가게 되면 험벗은 산이 西·北·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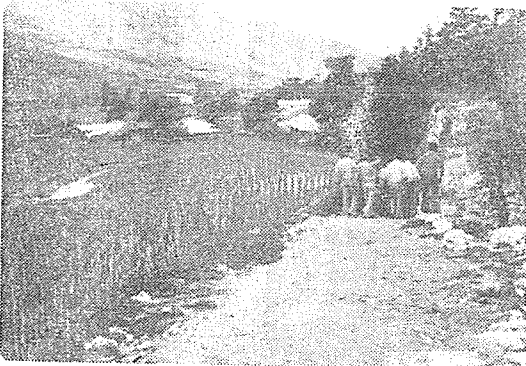


사진: 擴張된 마을 農路

帳幕을 치고있다.

이 산을 등에 업고 이뤄진 마을이 達城郡 論工面 茸耳一洞.

典型的인 산골마을이기 때문에 農耕地인들 번듯할 수가 없다. 다랑배미 논과밭이 있을뿐이며 特色이 있다면 韓牛入殖마을이라고나 할까.

總戶數 79戶中 農家 77戶 非農家 2戶의 分布를 보이고 있는 이 마을 總人口數는 516名, 戶當平均 6.54人으로 높은 率을 보이고 있다.

反面에 所得은 74年度에 戶當 60萬원으로 지극히 낮은편이며 耕地面積도 總 62ha로 戶當平均 0.8ha에 不遇한 실정이다.

이곳 住民들이 일찍이 “잘 살아보자”는 꿈을 키우지 못한 理由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立地의 與件때문이었다.

또 하나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은 이 주어진 與件을 어떻게 改善向上시키느냐 하는 方向을 設定할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指導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 따라서 이마을의 앞날은 착잡하고 어둡기만 했었다는 지난날의 回顧이다.

// 버려진듯한 마을의 첫 印象 //
// 結緣코 集中技術支援키로 //

慶北새마을 技術奉仕團(團長 洪鍾旭박사)은 結成과함께 새마을技術支援에 나섰다. 따라서 이곳 저곳 技術支援要請에 따라 여러마을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交通이 비교적 便利하고 其他 與件이 좋은 마을은 大部分 自助·自立마을의 水準에 올라 있

었다는 것.

그러나 山間奧地 마을은 아직도 基礎마을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었다고 한다.

특히 葦耳一洞은 그 代表的인 마을로 보고 들는 機會도 적을 뿐만 아니라 地理的 與件이 좋지 못해 나가서 배워올 힘도 없는 곳 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곳을 처음으로 踏査하고 技術結緣을 強力히 主張했었다는 全在琪박사(慶北道團副團長)는 與件도 나빴으나 너무도 落後에 指導해 주고 싶은 意慾이 생겼다"고 당시를 回顧했다.

全박사의 現地踏査보고를 받고 慶北道團에서는 任員會議을 열은 다음 技術結緣과 아울러 集中技術指導問題를 擧論케 되었다.

여기에는 反對가 있을 수 없었다. 全員一致의 意思에 따라 급기야 74年 7月10日 技術結緣을 맺었다.

// 흐름불이 電燈으로 둔갑
倉庫지고 所得增大박차 //

慶北道 새마을 技術奉仕團과의 技術結緣은 이 마을에 活力素가 되었다.

“해본들 소용있느냐”고 意氣銷沈했던 住民들은 “하면 된다”는 自信을 얻게 된 것이다.

먼 길을 찾아오는 科學技術者들이 한번 왔다 가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

안 열리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달리고 小橋梁工事を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다.

또 각종作物도 하라는대로만 하면 잘 되었으며 住民들을 虫卵檢査를 해서 回虫도 驅除해 줬다는 것.

그리고 상상치도 못했던 電燈불이 켜졌다. (74년 12월 29일가설) 勿論 이런 結果는 새마을 技術奉仕團과 部落民이 共同으로 關係當局에 建議努力한 보람이었다. 하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 들이었다.

어쩌다 都市에 나갔을 때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았을 뿐 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면 되었고 과학기술의 위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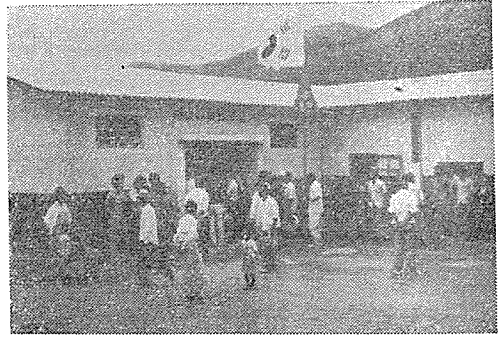


사진 : 새터 獨立된 마을 倉庫

얼마나 큰가를 피부로 느꼈다.

또 하나 이 마을의 자랑은 建坪 35坪의 마을 倉庫다(75년 3월 7일 착공—同 5월 4일 준공)

새마을 技術奉仕團의 技術指導를 받아 達城郡으로 부터 「시멘트」 70包와 其他 資材費 10萬원을 받아 손수 「블럭」을 찍어 만들었다. 시가 300餘萬원을 들여야하는 工事を 不過 100餘萬원에 만들게 된 것이다.

이제 現地에서 主穀共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가와도 穀物을 安全하게 保管하게 되었다는 것.

올해의 目標은 部落共同으로 使用할 電話와 簡易上水道施設(약 2,000m)이라고 한다.

簡易上水道는 道새마을 技術奉仕團에서 이미 水源地를 물색해 놓고 設計中에 있다. 또 電話도 關係當局에 要請中에 있다. 이것도 年内로 實現될 것이라는 期待를 갖고 있다.

그런가하면 秋收의 꿈도 자못크다. 電氣架設로 夜間作業을 했기 때문에 夏穀打作이 例年보다. 10日이나 빨랐다는 것. 그래서 벼이앙을 앞당기게 되었으며 統一벼의 식부면적을 지난해의 배로 늘려 소출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洞長 趙泰根(32)씨가 말해 줬다.

“하루건너 또는 이틀건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 주시는 선생님들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다 잘 사는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洞長 趙씨의 얼굴에 굳은 결의가 보였다.

그 동안에 실시한 주요 새마을 事業量은

△小橋梁建設=40미터 △小橋梁補修=15미터
△마을會館=35坪 △지붕改良=198棟 △農路擴張=2000미터이다. <鎬>